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 요구에 맞는 경영교육의 방향:

현 경영교육 학술 논의의 상황과 과제¹⁾

(Direction of business education addressing a call for a new capitalism era:
state and challenges of current academic discussions on business education)

노한균 (Han-Kyun Rho)²⁾

<요약>

이 글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요구와 그에 상응한 기업 경영 체제와 경영교육의 변화를 생각해보기 위한 첫 단계로 경영교육에 관한 국내외 학술 논의를 정리한다. 이 과정을 통해 경영교육 발전 방향에 관한 그간 논의 내용과 분석틀을 살펴보고,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 요구에 맞는 경영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경영교육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틀을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교육의 방향을 이미 논의했던 몇 가지 국내외 학술 논의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경영교육 방향 논의에서는 (1) 검토 대상 경영 교육 범위의 명확화, (2) 경영교육 목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 (3) 목적 설정 과정의 참여 폭 확대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지적 (예: Heilbroner and Milberg 2011; Kaletsky 2011; Piketty 2013)과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기업 경영 체제의 변화 요구 (예: Sisodia, et al. 2007; Porter and Kramer 2011)가 최근 들어서 자주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체제

1) 한국윤리경영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2015.4.24., 전남대) 발표 논문 (2015.4.10. 제출). 이 연구는 저자가 2014년도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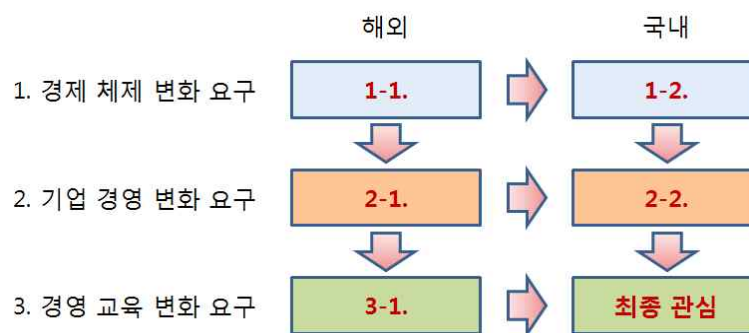
2)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동대학 경영연구소 지속가능경영연구센터 센터장 (이메일: hkrho@kookmin.ac.kr)

와 경영 체제의 변화 요구로 인해 기존 경영교육에 대한 성찰 (예: Colby, et al. 2011; Hardy and Everett 2013; Muff, et al. 2013)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관심 (예: EBS 자본주의 제작팀, 2013; EBS 자본주의 제작팀 외 2014; 장하성 2014)이 등장하고, 이런 새로운 모색을 기업 경영에 반영해 보고자 하는 시도 (예: 노한균 2011; 서영우 2011; 김성택 2012; 이유택 2012)도 늘어나고 있다.

연구 전체의 최종 목적은 요사이 제기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새로운 요구 분석을 토대로 시대 요청에 걸맞은 경영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는 새로운 경제 체제와 기업 경영에 관한 국내외 요구를 파악하여 한국의 경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그림 1]과 같은 논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연구의 논리 흐름도



출처: 저자 작성.

이 논리 흐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는 경제, 기업, 기업 구성원이라는 다른 수준에서의 변화 요구가 각각 상위 체제의 변화 요구로부터 하위 체제의 변화 요구로 반영될 필요성을 표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 구성 뒤에는 사회 체제의 구성 요소 사이에는 어떤 구성 요소의 변화가 또 다른 구성 요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며, 특히 하위 체제는 의도한 계획에

따라서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든 상위 체제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환경으로서 받아들여 적응하게 된다는 전제가 들어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전제의 연결 고리 하나 하나는 엄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경제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각의 제안들이 제도와 사회 행태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 경제 체제의 변화 내용이 기업 경영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 기업 경영의 방향 전환이 경영교육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 모두가 각각의 변화가 다른 변화로 이어지는 전달 체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전달 체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 변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상위 체제의 변화로부터 경영교육의 변화 방향을 찾으려는 이유는 경영교육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동적 현실 비판론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변화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변화 수용자로서의 기존 태도를 버리고 변화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능동적 규범론까지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 경영교육에 관한 그간 논의를 재정리하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연구의 논리 흐름은 또한 각각의 체제 수준 간 논리 대응을 해외에서의 변화 요구와 국내에서의 변화 요구로 나눠 서로 대비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향한 왼쪽으로 향한 화살표는 해외에서의 변화 요구가 국내에서의 변화 요구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일부는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런 논리 방향의 설정은 해외의 변화 요구를 국내 입장에서 타당한 해석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국제 경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입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외에서의 논의도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이 논문은 먼저 연구의 최종 관심인 경영교육의 변화에 관해 국내외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해 이미 논의되었거나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한 후, 다시 연구 진행의 논리 흐름에 따라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경제 체제 변화 요구에 관한 국내외 논의로부터 기업 경영의 변화, 경영교육의 변화 요구의 순서로 검토한 후 경영교육의 변화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II. 경영교육에 관한 기존 학술 논의 검토

1. 국내 논의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영교육에 관한 논의를 학술지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경영교육의 다양한 부분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그간 경영교육 연구 관심의 다양성을 경영교육의 체제를 구상하는 세부 단계와 해당 논문이 고려한 경영교육 영역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

먼저 경영교육 체제를 구상하는 세부 단계로는 경영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 경영교육의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 경영교육의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 경영교육의 교육 성과 측정과 평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해당 논문이 고려한 경영교육 영역은 경영학 전반을 다룬 논문과 경영학의 특정 하위 분야 (예: 마케팅, 기업윤리 등)에 초점을 맞춰 다룬 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류틀은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경영교육과 관련된 그동안의 국내 논의는 이 분류틀을 활용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초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본다.

<표 1> 경영교육 연구의 연구 관심 분류틀

다룬 교육 구상 단계 다룬 교육 영역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성과 평가
경영학 전반				
경영학 하위 분야				

출처: 저자 작성.

<표 1>과 같은 분류틀을 사용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기존 논문은 우선 교육의 목적을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그에 걸맞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평가할 성과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루고 있는 교육 영역 측면에서는 경영학의 특정 하위 분야에 초점을 맞춘 논문 보다는 경영학 전반을 다룬 논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경영학 전반에 걸친 미래 방향을 다룬 국내 논문으로는 백종현 (1972), 황일청 (1982; 1999), 유시정 (2000), 조병택, 유병남 (2006)과 같은 것이 있다. 이 중에서 비교적 근래 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황일청 (1999), 유시정 (2000), 조병택, 유병남 (2006)을 중심으로 해당 논문을 쓰게 된 계기와 확인한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방안을 살펴 본다.

황일청 (1999)의 직접 계기는 당시 대학 교육을 연구 중심, 대학원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경영교육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 필자의 견해에서 출발했다 (12쪽).

<표 2> 황일청 (1999)의 요약

사회 배경	드러난 문제	개선 방안
① 적당주의 사고 ② 체면의식 ③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 평가 부재 ④ 평가와 시정조치 존중 의식 부재	대학의 부실한 교육 목표 설정 [기관 수준]	1) 고객 중심 교육목표 설정 2)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 과정 개혁 3) 개혁을 위한 교육방법 연구
① 교수/교실 중심 권위주의 사고 ② 자율 학습 전통 미정착 ③ 교육 외의 곳에 관심을 둘 여유 ④ 학습에 대한 사회 무관심	학생의 비효율적 학습 관행 [학습자 수준]	4) 새로운 교육방법 도입을 위한 교수진 재교육 5) 효율적 학습을 위한 체제, 방침, 실천의 개혁
① 중앙통제 법과 규제의 역기능 ② 자율 교육 집행 권한 없는 행정 ③ 책임자의 빈번한 교체로 교육 행정의 일관성 상실	변화 적응 능력 없는 대학 행정 [기관 수준]	6) 교수 평가제도 개혁 7) 개혁 추진을 위한 경영대학 자율성 제고
① 등록금 의존 대학 재정 ② 새 시대 교육 부합 추가 투자 발생 ③ 대학 내 경영교육 투자 우선순위 낮음	부실한 교육 투자 [기관 수준]	8) 개혁에 필요한 투자 조달 9) 지속적 개혁 추진을 위한 경영대학 협회 결성
① 대학의 교수 관리 이중성 ② 교수 연구능력 부족 ③ 연구 결과 발표 기회 부족 ④ 경영학 특성 감안하지 않은 연구 업적 평가	부실한 연구 활동 [교육자 수준]	10) 산업계 관련 기관과의 유대 강화 11) 해외 경영학교육 관련 기관과의 제휴

출처: 황일청 (1999)에 기초해 저자가 요약하고, 제시한 후진성 수준을 [] 안에 추가.

항일청 (1999)는 한국 경영교육의 “후진성”으로 대학의 부실한 교육 목표 설정, 학생의 비효율적 학습 관행, 변화 적응 능력이 없는 대학 행정, 부실한 교육 투자, 부실한 연구 활동의 다섯 가지를 들었다 (13~15쪽). 그는 이와 같이 요약한 경영교육의 후진성을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회의 병리현상의 소산 (15쪽)”으로 규정하고, 다섯 가지 후진성과 그에 대한 사회 배경, 그리고 사회 배경과 후진성을 동시에 다룰 해결 방안 11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유시정 (2000)은 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경영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경영교육 연구를 분석해서, 경영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육 제도, 교수의 연구 활동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는 각 영향 요인의 세부 내용을 <표 3>과 같이 설정해 이들이 경영교육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경영학 전공 교수에게 물어 교수 방법의 세 요소 (교수 방법의 다양성, 프로젝트의 활용 정도, 교수 방법의 평가)와 교육 제도와 연구 활동의 각각 한 요소 (대학원 중심 전환, 외부 연구지원)가 경영교육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표 3> 유시정 (2000)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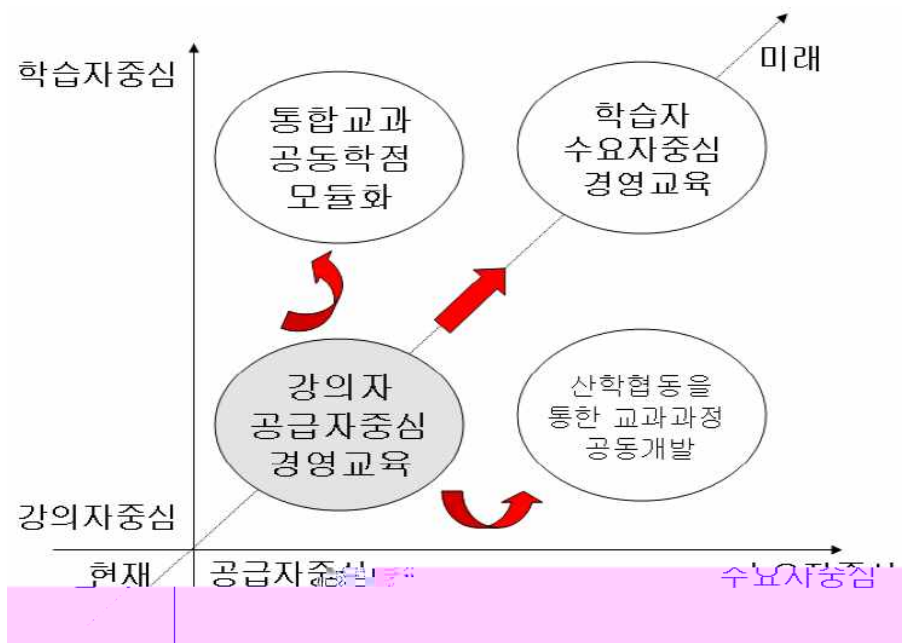
영향 요인	세부 내용	교육 성과 관련성	영향 요인	세부 내용	교육 성과 관련성
교육 내용	① 교과 과정의 변화 정도 ② 경영학 과목 수 ③ 전공 분야 다양화 정도 ④ 정보화 ⑤ 국제화 ⑥ 계량화 ⑦ 기업 윤리		교육 제도	① 학부제 적절성 ② 실시 중인 학부제 적절성 ③ 외부기관 평가 적절성 ④ 대학원 중심 전환 적절성 ⑤ 우수 교원 ⑥ 교육 시설 ⑦ 대학 평가	0
교수 방법	① 교수 방법의 다양성 ② 강의의 활용 정도 ③ 사례 연구의 활용 정도 ④ 프로젝트의 활용 정도 ⑤ 세미나의 활용 정도 ⑥ 팀 티칭의 활용 정도 ⑦ 교육 기자재의 활용 정도 ⑧ 교수 방법 평가	0 0 0	연구 활동	① 주당 수업 시간 ② 주당 연구 시간 ③ 교내 연구 지원 ④ 외부 연구 지원	0

출처: 유시정 (2000)에 기초해 저자가 요약.

조병택, 유병남 (2006)은 대학의 경영교육을 연구, 교육, 인증의 세 측면에서 보았는데, 특히 경영교육이 경영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림 2]와 같이 강의자, 공급자 중심의 경영교육을 학습자와 수요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또한 이와 같은 개선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장 현실과 업계 요구에 부응하도록 관련 경제 단체와 협력하고, 지나친 기능주의를 극복해서 경영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수 방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86쪽).

[그림 2] 조병택, 유병남 (2006)의 경영교육 개선 방향



출처: 조병택, 유병남 (2006), 80쪽 [그림 2].

2. 해외 논의

경영교육에 관한 해외 논의는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구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Business School Journal)」 (1928년 창간),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976년 창간), 「Management Learning」 (1978년 창간),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2002년 창간)과 같은 경영 교육에 전문화된 학술지를 통해 계속 축적되어 왔다.

한편 다른 경영 관련 학술지도 경영교육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는데 2007년 「Scandinavian Journal of Management」의 “경영교육: 연구와 실천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이라던가, 2014년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떠오르는 영역 (Highe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merging Areas)”과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분류틀과 같이 경영교육에 관한 해외 학술 논의도 경영교육의 체제를 구상하는 세부 단계와 해당 논문이 고려한 경영교육 영역이라는 두 차원으로만 살펴보더라도 다양한 연구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내 학술 논의와 마찬가지로 경영교육 전반의 발전방향에 관해 시사점을 가지는, 특히 경영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논의만 소개하기로 한다.

Engwall (2007)은 경영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잘 모르고, 받은 교육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가 없는 고객 (uninformed customer) (6쪽)”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평판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며, 경영교육은 수많은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경영교육과정의 품질관리를 통해 학생을 계속 평가해 줌으로써 고용자인 기업을 대신해 우수한 인원을 먼저 선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교육 경제학이 가지는 교육 기능에 관한 기본 가정이며, 이런 이해틀 속에서 경영교육의 주요 수요자는 기업이며, 경영교육의 목적은 고용자인 기업의 필요에 기초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Korpiaho 외 (2007)은 경영교육 관련 주요 학술지에 실린 글을 분석해서 경영교육에 관한 접근방식을 <표 4>와 같이 일곱 가지로 분류했다.

<표 4> Korpiaho 외 (2007)의 경영교육 접근방식 분류

경영 교육 접근 방식	누구		어떻게	무엇	왜
	교육자	학습자			
“전통” (비판 논문에서 구성된)	하위 학문 전문가	도구 지향 경력 출세 제일주의자	학문 구체 도구, 기법, 모형에 관한 강의, 사례, 여타 연습	성공한 전문가와 관리자	성공 (부와 지위)은 개인 재능과 가치에 의존하고, 교육은 기회를 제공?
MBA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	지불한 고객 (몇 년의 근로 경험, 경영자 지위로 가고 있는)	전통 교육 방법과 함께 광범위한 관리 도구에 관한 모듈 과정 프로그램	경영자 지위와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이 주어지는 접근	‘모든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의 경영 교육은 더 나은 경제, 자기 가치 (그리고 선호)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개인을 만들?
과학 기반 교육	학자와 연구자	이론 품질 (‘좋은/나쁨’)을 겪음	사고 기량, 독서와 작문의 예행 연습과 함께 견고하고, 증거에 기반한 이론을 소개	학술적으로 교육 받은, 책임감을 가지는 전문 관리자	지식 덕목과 도덕 책임은 진정한 전문직을 만들?
역량 기반 교육	기량 연구자, 훈련자, 평가자	전문 임무로까지 성장할, 개인적이고 개선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개인	교육자가 정의하고 평가하는, 근로 기량을 연습하고 입증	최적 관행을 전파하고 개발할 능력을 가진, 역량 있는 전문직	능력 있는 인간 전문직은 효과적이고 사회에서 ‘좋은’을 행함?
서비스 학습	교육에 헌신하는, 관심을 가진 시민이자 자기 분야 전문가	미래 전문직이자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는, 특혜를 받은 시민	비영리 부문 프로젝트와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 학술 지식을 적용	민주 사회에 대해 교육 받은, 책임감을 가지는 시민	서비스는 도덕 행동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 존엄성에 가치를 둬, 가치 집합으로서 민주주의?
행동 기반 교육	변화와 학술과 근로-삶 관행 연결의 동기를 가진, 개발자, 촉진자이자 공동 연구자	성찰 역량을 가진 경험 있는 전문직	성찰 공간의 도움을 받는, 전문 관행에 관한 행동 학습이나 연구 프로젝트	성찰하고, 자율성을 가진 실천가	동등 관계 속에서 실제적, 전문적이고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인간 개발?
비판 경영 교육	행동주의 학자이자 촉진자	교육의 희생자이거나 책임감을 가지는 전문직의 잠재가 있는, 자기 성찰, 개방된 마음의 학습자	관리 이데올로기/관행과 부정의 경험에 관한 지식 자원과 비판 성찰 공간을 제공	정치적으로 의식을 갖고 행동주의적인 전문직 (그리고 지식인)	소외에 저항, 희망 유지, 보다 나은 사회와 근로를 위한 투쟁?

출처: Korpiaho 외 (2007), 54~5쪽 Table I을 저자가 번역하고 표 구성을 변경.

경영교육의 목적에 관한 Korpiaho 외 (2007)의 해석 (<표 4>에서 특히 “무엇” 열)이 Engwall (2007)과 다른 점은 기업의 필요가 아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미래 모습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Korpiaho 외 (2007)이 분류한 접근방식의 일부는 기업의

필요를 충족해야만 경영교육을 받은 사람의 미래 모습이 달성될 수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경영교육의 목적을 기업의 필요 충족에 두느냐 아니면 교육 받은 사람의 미래 모습에 두느냐 하는 점이며, 기업의 필요가 교육 받은 사람의 미래 모습 형성에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관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경영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추가 과제

매우 간략한 검토지만 이 글은 한국의 경영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모색하는 첫 단계로 경영교육의 방향을 이미 논의했던 몇 가지 학술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경영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국내 논의들이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과 같이 특정 부분에 한정된 논의를 벗어나 전체 방향을 살필 수 있는 틀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논의들은 경영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Engwall (2007)과 같이 경영교육의 목적이 기업의 필요에 기초해서 결정된다는 암묵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측면은 Korpiaho 외 (2007)의 논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보다 다양한 경영교육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영교육의 목적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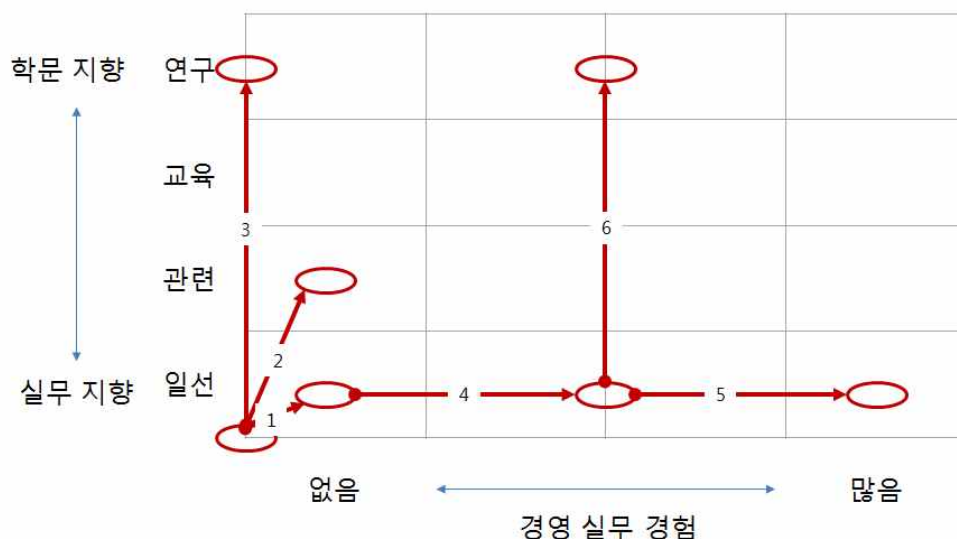
1. 검토 대상 경영교육 범위의 명확화

우리가 경영교육이라고 말하는 활동은 사실 교육의 대상 집단이 누구인가에 따라 목적 설정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Korpiaho 외 (2007)가 분류한 경영교육에 관한 7가지 접근방식도 교육의 대상 집단이 누구인가에 따라 특정 접근방식은 해당되지 않거나 관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경영교육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경영 실무 경험의 정도와 미래 지향에

따라 나누어 경영 관련 분야의 ‘경력 행렬 (career matrix)’이란 이름을 붙여 보았다. 예를 들어 경영 일선에서 일하고자 하지만 경영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학부생을 교육하는 것 ([그림 3]에서 화살표 1)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경영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을 전제로 경영교육을 받는 MBA 학생 ([그림 3]에서 화살표 4)이나 상당한 수준의 경영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사결정자로 일할 것을 전제로 경영교육을 받는 최고경영자 과정 학생 ([그림 3]에서 화살표 5)을 교육하는 것과는 목적에서부터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 성과 평가에 이르는 모든 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 경영 관련 분야의 경력 행렬 (career matrix)



출처: 저자 작성.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영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학부생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기업 경영의 일선에서 일하고자 하는지 ([그림 3]에서 화살표 1), 컨설팅, 회계법인과 같은 경영 지원 사업이나 경영을 감시·분석하는 NGO 활동 같은 경영 관련 간접 실무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지 ([그림 3]에서 화살표 2), 아니면 아예 경영학 연구 분야에 일하고자 하는지 ([그림 3]에서 화살표 3)에 따라서도 경영교육 체제 전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교육이 이제는 대학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업이 설립한 자체 교육기관과 기업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경영교육을 논의할 때는 경영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의 범위는 대학이 학부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영교육에 한정시켜 진행시키려 한다.

2. 경영교육 목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

굳이 Dick 외 (2008)과 같은 교수 설계 방법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첫 걸음이 교육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누구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경영교육 논의는 경영교육 목적 설정은 기업의 필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경영교육 목적에 대한 하나의 견해에만 오랜 시간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 견해를 별다른 심도 있는 논의 없이 Korpiaho 외 (2007)가 분류한 다른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다지 경영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경영교육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나, 그리고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경영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렵고, 설령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대로 실행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비판론에 의해 경영교육의 목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회피한다면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측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 성과 평가에 있어서 경영교육의 외형적 발전이 일어난다 해도, 이는 지향점이 모호한 뿌리 없는 발전이 될 것이다.

3. 목적 설정 과정의 참여 폭 확대

교육 목적을 포함한 교육 설계에 관한 기존 입장은 교육 수요자의 필요를 바탕으로 교육 설계자가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명확히

다뤄야 한다. 이는 앞서 첫 번째로 제기한 과제와 구분된다. 첫 번째 과제는 경영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 제공자와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둘째, 셋째 과제인 경영교육 목적 설정과 설정 과정 참여자가 명확해 질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여기서 제기하는 과제는 우리 연구와 같이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경영교육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해도 교육의 수요자를 학부생만으로 보고 교육 목적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직접 수요자와 함께 기업, 사회와 같이 직접 수요자에 대한 교육과 그들이 앞으로 수행할 역할의 영향을 받는 간접 수요자들의 요구를 경영교육 목적 설정을 포함한 교육 체제 고안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영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경력을 통해 가지게 될 사회 영향력을 교육과정에서부터 적절히 고려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영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성택 (2012) CSR 5.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서울: 청람.
- 노한균 (2011) (ISO 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천, 서울: 박영사.
- 백종현 (1972) 한국대학 경영학교육에 관한 반성: 교과목편성과 그 운영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2, 148-161.
- 서영우 (2011) CSR 실천방법론: 사회적 책임 경영의 체계 확립, 서울: 시그마인사이트컴.
- 유시정 (2000) 우리 나라 경영학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1, 271-294.
- 이유탉 (2012) 성장의 정석 CSR: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경영 전략, 서울: 한국능률협회미디어.
-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서울: 헤이박스.
- 조병택, 유병남 (2006)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 경영학교육의 과제와 개선방향: 연구, 교육, 인증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14, 17-89.
- 황일청 (1982) 우리나라 경영학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12 (1), 1-23.
- 황일청 (1999) [특집: 교육개혁과 경영학 교육 제도] 경영학교육 개혁의 우선순위: 대학이 지닌 문제의 올바른 인식부터, KBR (구 경영교육연구), 3 (1), 11-31.
- EBS 자본주의 제작팀 (2013)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서울: 가나출판사.

EBS 자본주의 제작팀, 정지은, 고희정 (2014)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서울: 가나출판사.

Colby, Anne; Ehrlich, Thomas; Sullivan, William M. and Delle, Jonathan R. (2011) Rethinking Undergraduate Business Education: Liberal Learning for the Profess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Dick, Walter; Carey, Lou and Carey, James O. (2008)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7th edn. Florence, KY: Allyn & Bacon; 최수영, 백영균, 설양환 옮김 (2008) 체제적 교수 설계, 5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Engwall, Lars (2007) The anatomy of management educ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Management, 23 (1),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4-35.

Hardy, Gordon M. and Everett, Daniel L. (eds.) (2013) Shaping the Future of Business Education: Relevance, Rigor, and Life Preparation,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Heilbroner, Robert L. and Milberg, William (2006) Making of Economic Society, 12th edn., Boston, MA: Pearson; 홍기빈 옮김 (2010)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 미지북스.

Kaletsky, Anatole (2011)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Philadelphia, PA: Perseus Books; 위선주 옮김 (2011) 자본주의 4.0: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서울: 컬처앤스토리.

Korpiaho, Kirsi; Paivio, Hanna and Rasanen, Keijo (2007) Anglo-American forms of management education: a practice-theoretical perspective, Scandinavian Journal of Management, 23 (1),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36-65.

Muff, Katrin; Dyllick, Thomas; Drewell, Mark; North, John; Shrivastava, Paul and Haertle, Jonas (2013) Management Education for the World: A Vision for Business Schools Serving People and Planet, Cheltenham, UK: Edward Elgar.

Piketty, Thomas (2013) Le capital au XXI siècle, Éditions du Seuil; Goldhammer, Arther (trn.)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Belknap Press; 장경덕 외 옮김 (2014) 21세기 자본, 서울: 글항아리.

Porter, Michael E. and Kramer, Mark 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 (1), 62-77.

Sisodia, Raj; Wolfe, David B. and Sheth, Jag (2007) Firms of Endearment: How World-Class Companies Profit from Passion and Purpose, Upper Saddle River, NJ: Wharton School Publishing; 권영설 옮김 (2008)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서울: 렉스미디어.